

제주사회복지신문

>2014년 12월 2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86호

‘희망을 나뉘요’ 사랑의 온도탑



▲지난달 20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희망 2015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다.

2015 목표액
28억 1700만 원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지난달 20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희망 2015 나눔캠페

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캠페인의 목표 금액은 28억 1700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2억 77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

의 1%(2817만 원)가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며,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된다.

이날 출범식 참석자들은 캠페인의 성공 기원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14 복지급여대상자 확인조사 실시

도내 4만 7975가구 대상

복지급여 누수 및 적정성 확인작업이 시행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2014 상반기 복지대상자 4만 7975가구에 대한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사업 급여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연금, 한부모 및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 8개 복지사업수급자다.

이번 조사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계 등 근로소득과 국세청의 사업소득 자료 및 재산세 관련자료 등 18기

관 50여 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 등 연계해 공적자료 변동분을 확인한다.

특히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그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국민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재산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자격 및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변동사유, 소명방법 등을 개별 안내하고, 소명자료 제출 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소득증가로 인해 부양비가 증가하거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보장종지 대상인 가구이지만 부양비를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기준의 150%이하인 가구에는 맞춤형 급여 도입시까지 보장연장특례를 계속 보장한다.

‘사랑나눔푸드마켓’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에서 운영하는 사랑나눔푸드마켓이 ‘제1회 전국사회복지지원나눔 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다.

‘제주사랑나눔푸드마켓’은 2009년 6월에 제주도 최초 푸드마켓으로 개소한 이후 지난 5년간 도내 저소득층을 위한 민간사회안전망

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기부식품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제주지역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대회는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행사로 오는 1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된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제주행복지단 03
직업재활의 날 제주 1030대회 개최
- 사회복지소식 4·5면
나를 넘어 우리로' 자전거 일주
희망콘서트 꿈을 잡(job)아라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제3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
성매매방지법 10주년 기념 50인 원탁토론
- 기획 8면
10대 시선으로 바라본제주(20)
법률홍덕터(16)

2014년
아라어린이집의
미술 이야기



함께해서 행복해요

아라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입니다.
지난 1년간 장애, 비장애 아동들이 함께 준비한 미술작품을 전시합니다.

▶ 일 시 : 2014년 12월 6일 (토) 오전 11시 ~ 오후 4시까지

▶ 장 소 : 아라어린이집 주변거리 전시회 및 물품판매

※ 수익금은 독거노인 내복입히기, 푸드마켓 물품지원비로 쓰여집니다.

사회복지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아라어린이집



제주행복기자단 • 3

2014 전국장애문화예술인대축제 열려



▲지난달 5일 탐동에 위치한 제주해변공연장에서 '2014 전국장애문화예술인대축제'가 열렸다.

지난 5일 탐동에 위치한 제주해변공연장에서 '2014 전국장애문화예술인대축제'가 열렸다.

도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이번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가 후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커뮤니티센터(센터장 임태봉)가 주최·주관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지역주민과 재가장애인, 문화예술인 포함 600여명

이 함께 한 이번행사는 프 라임 타악기 앙상블의 식 전공연으로 문화예술인콘서트, 문화예술 체험부스, 로드갤러리 등 여러 즐길거리로 구성됐다.

단순히 보고 듣는 공연이 아니라 켈리그래피, 캐리커처, 서각 등 미술체험부스 운영과 즉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출력해 액자를 선물하는 사진부스 등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다.

특히 방송, 공연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문화예술인밴드 '하

수상밴드'와 시각장애인밴드 '4번 출구', 장애청소년 풍물패 '땀띠'의 축하공연과 도내·외 사회복지기관(시설) 6개 팀이 참가한 경연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장애·비장애인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향후 매년 전국장애인문화예술인대축제를 개최하여 장애인의 문화향유의 폭을 다양하게 넓히고 지역사회(주민)에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오소영 기자

다문화 이해교육 섬마을 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가족문화원 주관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5일까지 '찾아가는 도서지역 다문화이

해교육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초등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여 각 국가의 풍습과 전통놀이를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난달에는 도서지역(주자도, 우도)에 거주하는 섬주민들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 및 임신육아, 출산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꿈공장' 6회기 사회복지사와의 만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는 지난 23일 진로체험 프로그램 '꿈 공장(dream factory)' 6회기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와의 만남을 진행했다.

초등학생 고학년 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프로그램은 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만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올바른 진로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진로체험프로그램 '꿈공장'은 이번 6회기를 끝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됐다.



추운겨울 '사랑의 연탄나눔'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수길)는 지난달 19일 제주도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300만 원 상당의 연탄 4000장

후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전

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임직원 40여 명이 함께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장은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매년 지속적으로 벌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기결정능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지난달 4일부터 오는 4일까지 총 10

회기에 걸쳐 제주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반 11명을 대상으로 '자기결정능력증진 프로그램 Jump Up'을 운영한다.

매주 화, 목 진행 주 2회씩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청소년 당사자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모임을 형성하고, 자기결정 능력 증진을 돕기 위해 진행 중이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1월 식품기탁자

- ▲성은전기철물=굴 120kg ▲금강수산유통=가자미 18kg ▲금강축산유통=돈반골 420kg ▲김치원=김치 40kg ▲꽃비나리는뜨락=떡 291개 ▲뉴월드마트=당면 27kg ▲동원F&B제주=냉장식품 390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콩나물 175봉, 두부 266모 ▲손뜻모아봉사회=떡국 120kg ▲암암영농조합법인=유기농빵 292봉 ▲자연드림이도점=빵 124봉 ▲제성상화=햄 9kg ▲제주보리촌=보리빵 69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100팩 ▲파리마켓 동광초점=빵 992봉 ▲행복나눔마트=세제 180kg



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10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460,000	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370,000	370,000
복지사업후원	6,055,200	5,174,230
푸드마켓후원	3,420,000	201,08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발행안내

- 발행인 : 고치환
- 편집인 : 김수완
- 등록번호 : 제주라 01010
-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소 :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 편집디자인 : 디자인열림
- 창간일 : 2007년 9월 1일

‘직업재활의 날 제주 1030대회’ 개최



▲지난 10월 30일 메이즈랜드에서 ‘제2회 직업재활의 날 제주 1030대회’가 개최됐다.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최영열)는 지난 10월 30일 메이즈랜드에서 ‘제2회 직업재활의 날 제주 1030대회’를 개최했다.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직업재활 사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직업재활 화합한마당축제가 진행됐다.

같은 날 제6회 장애인직업재활 기념식에서 일배움터 최영열원장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및 중증장애인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 표창을 수여 받았다.

이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후원하며 ‘중증장애인이 행복한 일터 확대의 해’를 선포하며 2015년 한해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고자 마련됐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대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되어왔던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비용 지원 대상을 기존 지원 대상인 1~3등급에서 6등급(전 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자는 1~6등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로 지원금액은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이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를 지참하

고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은 4~6등급의 여성장애인에 대해 도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 4700만 원 중 현재까지 39명에 대해 지원했다. 내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보다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건 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수필가 등단

「대한문학」 2014 겨울호에 신인 문학상



쪽에 거시겠습니까와 ‘어느 농아인의 독백’ 두 편.

김길웅 심사위원은 심사평에서 “글 속에 용해돼 있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은 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의 실천적 귀감이다. 현실의 대지에 뿌리 내린 강건한 작가로서 양질의 수필을 쓸 것이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김성건부장은 “어릴 적 수시로 일기장 검사를 하시는 아버지 덕에 부족하나마 생각한 바를 글로 쓰게 되었다”며 “본이 되는 수필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성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41)이 종합문예지 계간 ‘대한문학’ 2014년 겨울호(통권 48호)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수필가로 등단했다.

그가 내민 작품은 ‘어느

제주복지공동체포럼, 자문위원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제주복지공동체포럼(대표 박규현)은 지난달 2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포럼 소속 의원들과 자문위

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로 지역복지 공동체 복원을 위한 다양한 의

견을 수렴하고 정책화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제주복지공동체포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민간 사회복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특별강연을 통해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의회와 자문위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자문위원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 경제 등 8개 분야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관련 분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포럼을 운영하면서 의원연구 활동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범도민 여성폭력 추방 캠페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도내일원에서 ‘성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도민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 여성폭력관련기관 종사자와 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홍보물 배포 및 폭력에

대한 도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거리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오는 말까지 준공하고, 피해자 특성별 보호 치료를 위해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이달 안에 설치완료 할 예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추자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회장 이상언)는 지난 달 18일 추자도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실시했다.

추자체육관에서 ‘힐링음악회’를 테마로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능기부단체 느영나영문화예술단(단장 김영중)의 문화공연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

미용서비스, 수지침(뜸)서비스 등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비양도를 시작으로 우도, 가파도, 추자도, 마라도 등 총 7회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추자도 방문을 끝으로 올해 사업은 종료됐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대 도서지역 주민들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9개 회원기관들의 자원을 동원해 운영했다.

‘나를 넘어 우리로’ 자전거 일주



33명 아동·청소년 참가 10월 29일부터 3박 4일에 걸쳐 제주도를 자전거로 일주했다 고 밝혔다.

우리동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안명희)는 ‘지난 4개 지역아동센터(우리

동네 지역아동센터, 봉아름지역아동센터, 늘푸른지역아동센터, 이호지역아동센터)가 연합해 진행한 이번 사업은 각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청소년들 중 참여 희망자를 선발해 총 33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참여한 아동들은 지난 1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6번의 실전 훈련을 통해 기초 체력과 라이

닝 기술을 익히고, 오름 등반, 연합캠프 등 공동체 훈련을 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비바람이 치는 날씨에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아이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며 “친구들이 있어 완주 할 수 있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사랑나눔푸드마켓에 가래떡 기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소속 손뜻모아봉사회(회장 김여옥)는 지난달 7일 사랑나눔푸드마켓을 찾아 떡국용 떡 120kg(12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기탁 받은 떡은 푸드마켓 이용 대상자인 저소득층에게 지원됐다. 손뜻모아봉사회는 매년 떡국용 떡 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다.

민속오일장 나들이 진행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 10월 17일 지역에 사는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들과 함께 민속오일장을 다녀왔다. 이날 나들이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오일장에 가고 싶어도 여건상 엄두가 나지 않아 오랜만에 구경나온다며 필요한 물품을 사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아름다운 제주 문화탐방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제주시지회(회장 신영환)는 지난 10월 11일 일출랜드에서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일본 히로시마 장애인 산학회원, 서울 영성산악회원, 우리를 제약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소/식/마/당

특화프로그램 ‘평안미니올림픽’ 운영



평안전문요양원(원장 고수희)은 지난 10월 17일 요양원 마당에서 지역사회단체, 자원봉사자를 초청해 특화프로그램 ‘평안미니올림픽’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게임과 공연으로 진행됐다.

평안전문요양원은 5월 ‘가든파티’, 9월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평안장터’를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했으며, 12월에는 ‘평안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의 즐거움! 내일의 꿈’ 지원 선정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센터장 현성훈)는 지난 10월 24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렛츠런파크 제주)에서 실시한 제주도내 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 기부금 신청사업에 선정됐다.

센터는 ‘오늘의 즐거움! 내일의 꿈!’이라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지원 받았으며,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발달장애인의 정서안정을 위한 심리재활프로그램으로 원예활동과 수영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마사회 기부사업 전달식



하나장애인단기보호시설(시설장 김화옥)은 지난 10월 24일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실시한 복지시설 기부금 신청사업에 선정되어 전달식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제주도내 장애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총 18개를 현장 실사하여 심의를 통해 선정됐다. 지원 받은 기부금은 장비구입비와 프로그램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가족나들이



사회복지법인 성안복지재단(대표이사 김익남)은 지난달 8일 조손가정 어르신과 아이들과 함께 에코랜드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제주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실시한 이번 나들이는 기차여행, 토피어리 체험 등 문화활동을 체험하며 자신감을 충전하고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지역사회 교육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 서로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부부 행복 만들기’ 여행 떠나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과 부설 제주도노인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지난달 4일부터 2박 3일간 피해학대 어르신을 모시고 부부와 함께 하는 나들이를 진행했다.

이번 나들이는 청와대를 비롯해 양평 용문사, 두물머리 등을 산책하며 제주에서 보기 힘든 가을 단풍도 맘껏 즐기며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시간이 보냈다.

지역장애인 직업재활 제과·제빵 실시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부설 뽀얏(원장 임주리)는 지난 11월, 24일 하나원에서 제과·제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14년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재활 의지가 있는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주 2회 실시하고 있다.

뽀얏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사회복지 시 취업을 통해 장애인의 독립생활과 자립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음으로 통하는 아름다운 소통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지난달 19일 서귀포 지역 일원에서 사업체와 장애·비장애 근로자가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으로 서귀포시 지역사업체 대표, 취업장애인과 부모, 동료 근로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취업장애인의 장기고

용유지를 위한 환경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귀포시 지역 13개 장애인고용우수업체에 '희망앰파트너' 현판을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보고, 업체 소개 영상상영, 토론, 레크리에이션을 비롯해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즐거운 직장생활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014년 우수상표권 '은상' 수상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와 카리타스 산하 사회적기업 일배움터(원장 최영열)은 지난달 28일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매년 우수상표를 발굴, 시상하고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개최하는 '2014년 우수상표권 공모전'에서 일배움터의 플로베(flove)가 은상을 수상했다.

플로베는 원예와 카페를 접목시켜 원예카페를 운영하고자 그에 따른 카페 브랜드 개발과 응용 디자인 개

발을 통해 만든 이름이다.

Flower(꽃, 화초, 원예 등)와 Love(사랑, 기쁨)의 합성어로 '꽃향기가 피어나는 사랑스러운 정원'을 뜻하며, 친근하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오는 심리적인 힐링과 사회 환원의 장소라는 이미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상표디자인은 flove에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새싹을 표현했으며, 색은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마카오 그린을 사용 플로베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줬다.

직업평가 및 부모회의 진행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 5일 하반기 부모회의를 실시했다.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모

회의를 통해 보호자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직업평가는 일상생활영역, 작업행동도, 작업공정도 세 영역을 일주일 동안 교차평가 후 사례회의를 거쳐 직업재활능력향상 방법을 논의하여 재활계획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모회의에서는 이용장애인들의 동료와의 관계, 근로만족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했다.

희망콘서트 '꿈을 잡(job)아라'



세대간 소통의 장 마련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달 8일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에서 2014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희망콘서트 '꿈을 잡(job)아라'를 성황리

에 마쳤다.(사진)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열린 이번 콘서트는 직업전문가, 자립위원, 위탁아동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자립'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민수(가명, 애월고 3), 신유미(가명, 제주관광대), 조미영(여행칼럼리스트), 정재엽(JIBS 편성제작국장)이 참여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식/마/당

전국체전 환경정비 청소용역 실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엘린(원장 한봉금)은 제95회 전국체육대회 기간인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및 제주시 지역 28개 경기장에 환경정비 청소용역을 실시했다.

환경정비를 한 결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업무를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아 장애인사업장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됐다.

엘린은 지난 5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으며, 6월에는 사회적기업 인증도 받았다.

떠나요! 해외로 첫 가족여행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거주장애인 및 직원 총 79명이 국내·외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홋쿠오카 등 일본 일대와 서울, 경기를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흥기 원장은 "일본여행은 경제적 어려움과 이동이 불편함으로 여행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넓은 세상을 느끼며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용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K와 함께하는 김장나눔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충석)는 지난달 19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SK와 함께하는 2014사랑의 김장나눔사업'을 진행했다.

SK에너지(주)제주물류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김치완제품(10kg) 1500박스를 지역사회 30여개 기관과 400가구에 나누는 행사로 이뤄졌다.

희망나눔바자회 열려



제주순복음종합중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지난달 15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희망나눔 바자회'를 개최했다.

저소득 가정의 겨울 나기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아디다스 제주점, H마트, 조일약국 등 지역사회 업체 및 기업, 지역주민의 후원과 네일아트, 캐릭커쳐, 즉석사진촬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시론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갖는 의미



고보선

제주국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주도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0%에 근접하여 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률이 50%에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노년기의 중요한 자원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측면의 생산성에 초점을 두어 물질 자본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개인에게 내재된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이익에 초점을 둔 비경제적 측면으로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둔 인적자본을 강조하고 있다.

노인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노

인의 사회적 기여와 이에 대한 노인의 성취감과 삶의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노인의 사회적 기여는 가족, 친구, 이웃, 세대간,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상호관계 속에서의 모든 부분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특히, 노인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노인의 신체, 정신 및 사회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 개인적 중요성을 담고 있다. 첫째,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활기찬 노년을 제공한다. 둘째,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자본이 활성화되면, 노인에게 대한 사회적 비용절감과 더불어 사회보장 및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한다. 넷째, 노인은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노인문

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대한 세대간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노인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포함한다. 노인의 개인적 가치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여와 주체적 삶, 성장과 활기찬 노후, 세대간 교류와 사회통합 등이며,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자본 개발과 성장, 사회적 비용절감과 사회보장 확대, 사회적 지지와 사회통합 등을 들 수 있다.

노인의 다양한 가치 인정

노인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인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인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노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모든 세대와 더불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이 시급하다. 특히,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칼럼

'그 때 그랬으면' 으로 기울 것 같은 연말

1.

11월도 저물어 가는 어느 날 오후,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 마음이 매우 심란하여 대낮부터 막걸리 한 잔하고 있다며 얼른 와 자신과 함께 하자고 한다. 마침 창 밖에 추적추적 내리는 늦가을 비마저 어서 가라고 손짓하는 것 같다.

하지만 사전 약속이 돼 있어서 갈 형편이 아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끔은 친구들과 낚시를 해온 터인지라 만나러 갔겠지만 어쩔 수 없다. 친구는 상당히 섭섭했는가보다. "박사가 돼서는 달라졌다"면서 다시는 전화하지 않겠다고 통화를 끊는다. 친구가 오죽 심란하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 생각하니 오후 내내 마음이 편안할 리 없다. 뒷날 다른 친구의 중재로 우리는 해장국을 같이했다.

2.

이 같은 사례는 아마 우리의 연배에서는 빈번한 일이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화두로 삼는 이유는 비록 일상의 사소한 일일지라도 깨닫게 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아서다.

우선,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버리곤 하는 '지금'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를 지금 이 시간이라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지금 친구와 통화하는 자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사람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보다 더 진솔하게 친구에게 마음을 쏟아야 했음을 반성한다.

또한 오늘의 사례는 맺힌 것이 있으면 가급적 빨리 풀어버리는 것이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점을 생각해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명하게 표현한 법구경에는 "녹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결국 그 녹이 점점 그 쇠를 감아 먹는다"고 했다. 자신이 만들어낸 사소한 것이 나중에는 자신에게 커다란 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화해를 중재한 다른 친구나 해장국을 같이한 친구 모두가 고마울 뿐이다.

3.

2014년 갑오년 말미 해도 어느덧 마지막 칼린더 한 장을 남겨 놓고 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날들을 회상해본다. 지나온 날은 지금의 과거형인 그 때가 된다. 그러나 지나온 날은 만족보다는 '그 때 그랬으면' 하는 후회스러움으로 더 점철된다. 연말만이라도 현재 진행형인 지금을 잘 써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연말의 저울추도 '그 때 그랬으면'으로 많이 기울 것 같다. 다시 안이해지려는 내 일상이 걱정스럽다.



김범훈

전 제주일보 논설실장

기고

행복한 가정, 복지로 가는 사회



한복섭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제주지회 부회장

시월, 가을빛이 완연하다. 흐드러진 억새꽃 황금물결이 일렁이는 가을이 온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을과 더불어 성숙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를 살다가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간다. 가정은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쉼터이다.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고 있는 노숙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서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되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이다.

새해가 되고 봄이 오면 우리의 가정에는 소망하는 일들이 있다. 가정의 식구들이 모두가 건강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일, 사업이 잘되고 그러한 일들이다. 어떤 설문조사에 답한 사람들의 96%가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 우리의 가족이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은 온 인류가 바라는 조건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 눈을 갖고 있어도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다.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 안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으므로 불행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불행한 것이다.

많은 청소년들의 상담 사례를 보고 있노라면 가정이 서지 못한 사회에 제대로 사랑을 양식으로 먹고 나가야 하는데 부모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정, 사랑은 저수지, 샘물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

보험에 들어놓고 자기의 가족을 저버리고, 아니면 돈 때문에 철모르는 아이를 납치하여 괴롭히는 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된다. 이럴수록 우리의 가정을 점검해 보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랑은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는다.

오늘 날 가정은 위기에 서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속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이며 진정 사회복지로 가는 길이다.

제9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

“아동학대행위자 치료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필요”



▲지난달 15일 제주한라대학교 부설 유치원 대강당에서 '제9회 아동학대 예방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주지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제주한라대학교 부설 유치원 대강당에서 '제9회 아동학대 예방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발생한 울산, 칠곡계모 학대사건, 고양시 세자매 아동방임 사건, 구미 2세 유아 살해사건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을 체계화하는 자리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대표발의자인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안 의원은 “특례법 시행의 가장 큰 의의로 아동학대가 범죄로 인식되고 국가가 개입하는 여지가 커졌으며 가중처벌 규정을 통해 형법상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화하고 재범방지에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특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훈육 아닌 범죄로 인식돼 재범방지 기여 도내 아동 보호 쉼터 1개에 불과, 쉼터 확대 돼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3년 10월 16일, 부산고등법원이 '울산계모'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박모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의 여론이 높아 지자 특례법안을 발의됐고 같은해 12월 31일 본회의를 통과해 올 9월 29일부터 시행중이다. 이날 세미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됨에 따라 요지를 살피는 한편 이에 따른 아동 보호체계의 변화를 예측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진단, 그 대응책을 모색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 사례에 대한 접근 및 대처방

또한, 안 의원은 “특별법 시행의 성과는 법 규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양측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필요한 예산과 인력지원을 반영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미국 등의 입법례를 참고해 재정지원과 실태조사 모니터링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성호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도내 아동보호 쉼터는 남성 전용 쉼터 1개뿐”이라며, “장애인 전담보호 쉼터, 여성전용 쉼터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며 쉼터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매매방지법 10주년 기념 50인 원탁토론

“탈 성매매 여성에게 실질적인 지원책 있어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 현장상담센터 해남(소장 송영심)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지난달 14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성매매방지법 시행 10년-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5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성매매 방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송영심 해남 소장은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대부분의 예산지원이 자활교육에 쏠려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거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자활센터의 공동작업장이나 인턴십 프로그램에 적응하지 못해 고

한다”며 “특히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항목이 주거임을 고려했을 때 임대주택 우선권 부여 등을 위한 정부-지자체-LH공사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지천 집결지 문제도 거론됐다. 송 소장은 “해남이 산지천에 현장상담소를 열고 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은 탐라문화광장 사업 진행 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탐라문화광장 사업에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포함돼야 하며, 현장단체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성매매 방지와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피해여성 예산이 자활교육·운영비에 쏠려 도 조례에 피해여성에 대한 구체적 지원 명시 해야

육을 포기하는 여성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제주도가 책정한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예산은 자활센터 교육·운영비 1억300만 원(56.5%)을 비롯해 긴급생계비 지원(직업전환생계비) 4천500만 원(19.6%),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지원 5천만 원(21.7%),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구축 500만 원(2.2%) 등이다. 송 소장은 “피해 여성들의 안정적인 자립과 자활을 위해서는 지원 예산 확대와 더불어 생계·일자리·주거 등 다각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50인 토론회에서는 토론주제2-성매매여성 보호 및 비범죄화를 위한 실효적 방안에 대한 토론내용으로 “제주도 여성폭력방지조례에 성매매 피해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항을 만들어야 하며, 불법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시민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토론주제3- 성매매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실효적 인식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내용으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휩쓸리지 않도록 학교에서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난달 14일 성매매방지법 10주년 기념 50인 원탁토론회가 개최됐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20) - '에코소랑을 다녀와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

이제는 완연한 겨울이 찾아온 듯 쌀쌀한 어느 날, 몽생이기자단 2기는 제주 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에코소랑을 다녀왔다.

사회적 기업 에코소랑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로서 장애인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곳이다.

'에코소랑'의 뜻은 자연을 상징하는 나뭇잎을 모티브로 친환경과 메아리를 뜻하는 '에코'와 제주고어로 사랑을 뜻하는 '소랑'을 합쳐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제주자연의 정직과 믿음을 그대로 담아 친환경화장품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많은 지역 장애인들의 고용을 창출하여 장애인들



▲지난달 몽생이 기자단 2기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 에코소랑을 다녀왔다.

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한 기업이다.

에코소랑은 2010년 장애인근로사업장 시설신고를 시작으로 2011년 3월에 에코소랑을 설립,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지금까지 정직한 화장품을 만드는 제주의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이어오고 있다.

에코소랑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현재 훈련생 5명을 포함해 35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에코소랑 화장지는 엄선된 원료와 잉크 및 화학품을 사용하지 않아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나 관공서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화장지

말고도 복분자 과실원, 오미자 과실원, 매실 과실원, 감귤 과실원, 허브차, 허브비누까지 다양한 제주 자연의 정성 그대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작업능력이 낮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작업 능력 향상 및 취업, 근로인의 지위향상 등을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허브를 키우고 재배하여 그 허브를 통해 차와 비누를 만드는 훈련을 하고 있었다.

과실원은 과일을 숙성시켜 만든 발효효소로 합성색소, 합성보존료 등 화학첨가물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낸다.

에코소랑에서 근무하시는 장애인 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진짜 이분들이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자신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 보람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취재였다. 몽생이 기자단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림'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홍닥터 10

두 자매의 네버엔딩 스토리...해피엔딩을 위한 손길!

성폭행 피해로 물든 자매를 구원한 변호사들



양영화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홍닥터

"가족이 무엇일까요? 왜 가족은 저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하는 거죠?"

A씨는 이제 갓 성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였고 아이까지 출산한 상태이다. 친아버지의 가정폭력을 피해 찾아온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지

만, 그녀는 참기만 했다. 동생들에게만은 가족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붓아버지가 A씨의 여동생들까지 강제추행하기에 이르면서, 결국 그녀는 의붓아버지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법률홍닥터와 함께 그들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찾다.

법률홍닥터는 A씨를 만나 가녀린 그녀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지난 이야기를 듣고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후 법률홍닥터는 법률적인 지원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청 관계자와 협력하여 그녀의 체납된 월세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

도록 지원하였다. 열악한 생활로 인해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그녀를 위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음식을 조달하였을 뿐 아니라, A씨와 여동생이 검정고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하였다.

법률홍닥터는 A씨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연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 재판 절차를 설명하고, 법정 참관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다행히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12년 구형, 전자발찌 착용,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고, 가해자는 상고를 하였지만 상고가 기각되며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성폭력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및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을 지원한다.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이다. 성폭력상담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 단계부터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어 고소장 작성부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

다.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필요적 수사개시 보고대상 사건이므로 해당 사건 발생 시 성폭력 전담검사에게 보고되고, 국선변호사의 선정도 이때 이루어진다.

◆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성폭력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문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 없이 1301)
- 경찰청(국번 없이 112)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1899-3075)